



주택 경쟁률 15개월 만에 최저

2022년 8월 — 5월에 Redfin 에이전트가 작성한 홈 오퍼의 57.8%가 경쟁에 직면했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Redfin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4월의 60.9%와 1년 전의 68.8%의 팬데믹 피크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Redfin 에이전트가 제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입찰 전쟁에서 일반적인 주택은 5월에 5.3개의 제안을 받았으며 2021년 4월 6.8개, 5월 7.4개에서 감소했습니다.

내슈빌 레드핀(Nashville Redfin)의 부동산 중개인 제니퍼 바우어스(Jennifer Bowers)는 발표문에서 “2개월 전에는 5~10개, 6개월 전에는 25~30개였던 것에 비해 현재 주택은 1~3개 제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안도 이전처럼 정가보다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최근에 아주 귀여운 동네에 침실 3개, 화장실 3개짜리 집을 \$399,900에 등록했습니다. 검수를 통해 정가보다 12,000달러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었지만, 3개월 전만 해도 구매자는 60,000달러를 요구하고 검수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Redfin에 따르면 주택 구입자 경쟁은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가능성을 낮추었기 때문에 냉각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의 일반적인 월 모기지 지불액은 현재 5.78%의 모기지 이자율에서 \$2,514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2.93%입니다. Redfin 경제학자들은 입찰 전쟁 비율이 연말까지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Redfin이 분석한 대도시 지역 중 경쟁에 직면한 Redfin 에이전트가 작성한 주택 오퍼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프로비던스, R.I.(5월 45.3% 대 1년 전 82.7%, 37.4% 포인트)였습니다. 감소. 다음은 리버사이드, 송아지였습니다. (41% 대 73.7% -32.6%),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52.2% 대 82.9%, -30.7%), 샌프란시스코(57.7% 대 78.2%, -20.5%) 및 플로리다주 올랜드(51%) 대 71%, -20ppt).

Redfin이 분석한 단 3개 시장에서만 경쟁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5월에 74.5%의 주택 제안이 경쟁에 직면해 65.4%(+9.1 ppts)에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매사추세츠주 우스터(81.8% 대 77.3%, +4.5%)와 마이애미(63.2% 대 62.1%, +1.1%)였습니다.

5월 전체 입찰 전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Redfin 에이전트가 작성한 홈 오퍼 중 41%가 경쟁에 직면함), R.I. 프로비던스(45.3%), 워싱턴주 올림피아(47.2%, 호놀룰루)(47.8%)였습니다.), 미네아폴리스(48.7%)가 가장 높았고 매사추세츠주 우스터(81.8%)가 가장 높았고 라스베이거스(74.5%), 보스턴(72.6%), 댈러스(72.3%), 필라델피아(69.3%)가 뒤를 이었다.

타운하우스는 5월에 Redfin 제안의 64.6%가 입찰 전쟁에 직면하여 다른 어떤 유형의 부동산보다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큼니다. 다음으로 단독주택(61.6%), 다가구주택(58.2%), 콘도/협동조합(54.7%) 순이었다.